

‘전북성공시대 열기 위한 약속’

민주 전북자치도당,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2045 탄소제로 그린성장 중심지 등 9대 정책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승리와 함께 현 정권을 심판하고 전북특별자치시대 전복성공시대를 만들기 위한 도민과의 약속으로 9대 정책공약을 밝혔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이성운(전주), 정동영(전주), 신영대(군산김제부안), 이원택(군산김제부안), 윤준병(정읍고창),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후보자가 한 자리에 모여 총선 승리를 위한 전북발전 9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모두 발언에 나선 한병도 위원장은 “국내의 경제 침체와 장기 저성장 고물가로 도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전북특별자치 시대가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 전북도당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약속한 9대 정책공약으로는 △미래 융합형 산산업과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조성 △2045 탄소제로 그린성장의 중심지로 조성 △첨단 농업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국회의원 후보들이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복성공시대 전복발전 9대 약속'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윤준병(정읍고창)·이원택(군산김제부안)·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한병도(익산)·이성운(전주)·신영대(군산김제부안)·정동영(전주) 후보.

과학기술로 농생명산업을 강화 △글로벌 K-Culture 전복! △청년 투자 늘리고,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 전북 △새만금 주요사업 2030년까지 완공 △전북 주요 SOC를 조기에 구축 △입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을 제시했다.

총선 기화대장인 이원택 후보는 “3대 바이오융합산업을 키우고 방산혁신 클러스터 등 미래산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점 등이 이번 공약에 큰 장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병도 위원장과 정동영 후보 등은 “특별자치시대 전복성공시대를 위해

마련한 9대 핵심공약이 전북도민 앞에 드리는 소중한 약속이며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밝힌 후 “일타의 힘 중요한 만큼 부족한 부분은 극복해 22대 국회에서는 더 활발하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25일 익산시에 위치한 신재용 새로운미래 익산갑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신재용 후보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익산 구태정치 환골탈태 기회 달라”

새미래 신재용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료

이낙연 공동대표·조남석 익산시의원 등 참석

새로운미래 신재용 후보(익산갑)는 25일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익산 앞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광주 광산에 출마한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신정현 책임위원과 김만홍 정책위의장, 진봉현 변호사와 김양규 전 목포시의원·이강욱 재경익산항우회장 등이 참석해 신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를 축하하는 등 수많은 지지자가 운집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또한, 무소속인 조남석 익산시의회 의원도 함께 축하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축사에서 “사람은 오래 남지 못하지만, 사람이 남긴 업적은 수백 년이 남는다”며, 익산의 백년을 내다보면서 신재용을 키워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익산은 호남권에서 청년인구 유출이 가장 심한 곳”이라며 “운동선수, 학생회장은 물론이고, 서울대학교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모집했을 때 당선되었던 신재용 후보가 가진 창의력으로 이런 익산의 운명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격려했다.

신재용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리와 익산이 통합될 당시 33만이던 인구는 올해 27만으로 추락했다”며 “갑소추체가 지속되면 익산은 인구수 부족으로 의석이 2개에서 1개로 줄어들고 발언권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을 대변할 창구가 줄

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30만 도시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신재용 후보는 “익산은 애절점 희망을 잃고 있다.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정치인들의 오만한 마음 가진, 더 나아가 사실상 후남 일당 정치체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며 “그러나 폭정을 일삼는 윤석열 정권을 강하게 견제하지 못한다. 지금의 민주당은 적대적 공생관계, 소위 ‘윤·명 패권연대’라고 역설했다.

신 후보는 이와함께 “새로운미래와 나의 기호 번호도 기록권 유지를 위한 위상정당 창당의 흔적이 담긴 숫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온 국민이 바라는 상식과 원칙을 복원시키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젊고 용감한 후보 신재용에게 익산의 구태정치를 업어치기 한 판으로 제압하고, 환골탈태시킬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익산갑 출마를 선언한 신재용 후보는 지난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익산 시청에서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 및 공공기관 이전 총력 △익산역 광역복합 환승체계 구축 △청년 정책 및 인구수 늘 극복 방안 구축 등을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등 지역 밀착형 공약을 제시하고 “자랑스러운 익산의 아들 신재용이 잃어버린 익산의 자존심을 되찾리고,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어 일으키는, 새로운 미래가 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특별취재반

민주 윤준병 후보, 정읍고창 읍면동 1특화 책임공약 발표

제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후보(정읍·고창)가 총선 정읍·고창 37개 읍·면·동 1특화 책임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가 발표한 정읍·고창 읍·면·동 1특화 책임 공약을 살펴보면, 주민분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는 정읍시의 경우 △수성동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 △정읍동 ‘주민자치센터 확장’, △초산동 ‘공공 복합센터 건립’, △신대마을 ‘작은목욕탕 건립’, △감곡면 ‘문화시설 확충’, △정읍면 ‘파크골프장 건설(36홀)’, △태인면 ‘전통시장 철거 및 청소년숙소 건축’, △덕천면 ‘어울림 복지센터 신축’ 등이 있으며, 고창군의 경우 △고창읍 ‘다목적 문화시설 조성’, △신림면 ‘신림저수지 둘레길 조성’, △해리면 ‘경로당 증개축’, △아산면 ‘복지회관 기능보강’, △공음면 ‘청소년 체육시설 확충’, △심원면 ‘체육시설 건립’, △부안면 ‘복지시설 증개축’, △성내면 ‘테마파크 조성’ 등이 있다.

또한, 정읍 연지동 ‘정읍역 광장 복원 및 재편’ 등도 내놓았다. /특별취재반

새로운미래 “의료대타협위원회 구성하라”

의과대학 증원 놓고 정부·이사단체 간 갈등 확대 따라 거둬들인 광화문광장서 긴급 정당연설회 열고 “국민 생명·안전 지켜내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제3지대 신당 새로운미래는 25일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이사단체 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대화를 촉구하는 ‘의료대타협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했다.

오영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긴급 정당연설회를 열고 “가장 중요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국민 생명·안전부터 지켜내자”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아무리 바쁜 선거운동 기간이어도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그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어제 다행히 집권여당과 전국 의대교수협의회의 대화가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참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 갈등의 핵심은 그 자리 그대로 남아있

다”며 “의대정원 확대 관련 갈등은 여전히 한 치의 양보없이 그 자리에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사단체를 향해 “전국에 계신 의사 여러분, 부디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달라”며 “우리 의대 교수 여러분께도 간절히 호소드린다. 집단사직서 제출을 멈춰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정부에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한다”며 “정원 확대 규모에서는 타협이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선 긋지 말아 달라. 우선 환자를 곁으로 의료진이 복귀해서 환자의 생명부터 돌보고 지킬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는 “아무리 정당하다 옳다고 주장하는 집단행동일지라도 환자의 생명을 도외시킨 채 환자의 곁을 떠난 채 강행한다면 끝내 소명의식을 저버린 정말 나쁜 집단행동으로 국민과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정당들에도 간절한 마음

으로 요구한다”며 “중요한 선거국면이지만, 아무리 바쁜 선거운동 기간이지만 부디 의료대단, 국민의 생명·안전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경민 공동선대위원장은 “현재 전혀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이유는 시작점은 바로 의사 2000명 증원”이라며 “갑자기 느닷없이 2000명 증원이라는 카드를 딱하니 꺼내놓고 ‘이걸 받을래 안 받을래’ 이라고 있는 형국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위원장은 “정부가 반성하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의료진들도 다시 한번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처음부터 환자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미래 의료체계를 위해서 논의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

▶바로잡습니다

3월 25일자 1면에 게재된 ‘도내 총선 10개 선거구 ‘출사표’에서 도내 총선 후보자들은 총 34명이 아닌 ‘총 33명’입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